



담당부서	회원조사팀
담당자	팀장 윤경태 대리 이채윤
전화번호	031-410-3030(내선247)

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ansancci.korchaam.net) ▷ 새소식 ▷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

안산 제조기업 26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 '72.9', 전분기 대비 반등했지만 기업 체감경기 여전히 '위축'

- 안산지역 2026년 1분기 BSI '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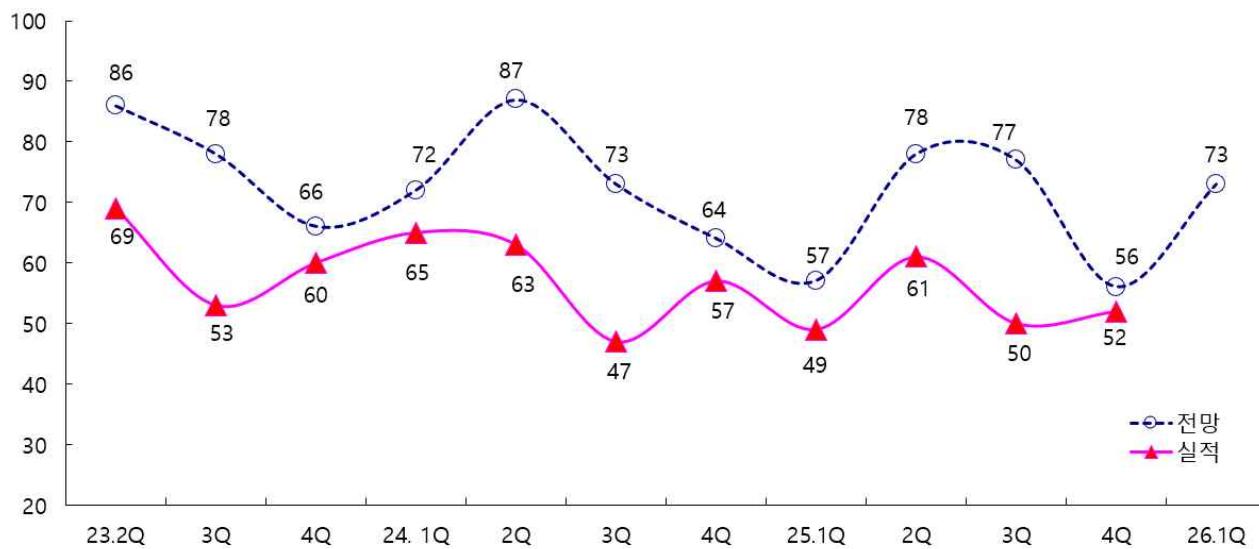
- 그러나 BSI 기준치(100) 하회, 기업 체감경기 부정적 전망 지속
- 응답기업 35.5%, 2026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흐름은 '2025년도와 비슷' 전망
- 안산지역 기업들의 2026년 내수·수출 실적 목표는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 수준'을 유지

안산상공회의소가 안산지역 소재 제조기업 107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72.9'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종합 전망지수(77.3)와 경기도 종합 전망지수(74.9)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반등했지만, BSI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종합)

(단위 %)



※ BSI가 100 이하는 부정적,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임.

세부 업종별로는 목재종이(100), 기계설비(97), 기타(100) 업종은 '보합'을 전망했으며, 전기전자(82) 업종은 '부진', 그 외 석유화학(67), 철강금속(56), 비금속(50), 운송장비(33), 섬유의복(14) 업종은 '침체'를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호전'을 예상한 업종은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2025년 매출실적 달성 수준은 응답기업의 **74.8%**[▲10% 이내 미달(42.1%), ▲10% 이상 미달(32.7%)]가 연초 계획한 매출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외에 연간목표 달성(13.1%), 10% 이내 초과 달성(7.5%), 10% 이상 초과 달성(4.7%) 순으로 나타났다. 미달을 예상한 핵심 요인으로는 ▲내수시장 침체(66.3%) ▲수출시장 경기둔화(15.0%) ▲시장 경쟁 상황 심화(12.5%) ▲공급망 등 생산 차질(5.0%) 등이 있었다.

2025년 영업이익 달성 수준은 응답기업의 **72.9%**[▲10% 이내 미달(41.1%), ▲10% 이상 미달(31.8%)]가 연초 계획한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응답했고, 연간목표 달성(17.8%), 10% 이내 초과 달성(3.7%), 10% 이상 초과 달성(5.6%) 순으로 응답했다.

미달을 예상한 이유로는 ▲원부자재 가격변동(38.3%) ▲인건비 부담(35.5%), ▲환율 요인(11.7%) ▲관세·통상 비용(5.6%) ▲설비·연구 등 투자 확대(3.7%)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기업들이 예상한 2026년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올해와 비슷'이 35.5%로 가장 많았고, 소폭 둔화(25.2%), 올해보다 소폭 개선(24.3%), 올해보다 뚜렷한 악화(15.0%)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6년 내수 실적 목표에 대해 응답기업의 '**29.9%**'가 '**올해 실적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0% 이상 축소(17.8%), 10% 미만 확대(17.8%), 10% 이상 확대'(17.8%), 10% 미만 축소(16.8%)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내수 경기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신중한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6년 수출 실적 목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응답기업의 '**42.1%**'가 수출 실적 목표를 '**올해 실적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0% 미만 확대'와 '10% 이상 확대'가 각각 16.8%, '10% 이상 축소'(13.1%), '10% 미만 축소'(11.2%) 순으로 나타났다.

안산지역 기업들의 2026년 경영계획 핵심 기조는 응답기업의 57.0%는 '안정(유지)경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보수적 경영 기조가 우세했다. 이어 축소경영(22.4%), 확장(성장)경영(20.6%) 순으로 집계되었다.

2026년 경영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로는 '경기·수요 전망'을 꼽은 기업이 6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비용·수익성 요인(23.4%), 기업 내부 사정(6.5%), 대외 통상 리스크(3.7%), 정책·규제 환경변화(2.8%) 순으로 나타났다.

2026년 경제성장을 견인할 주요 긍정 요인으로는 '금리 인하 및 금융여건 완화'(23.4%)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기업 규제 완화(16.8%), 수출 호조 지속(14.0%), 국내기업 투자 확대(13.6%),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13.1%), 고환율 해소(10.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성장을 제약할 하방 요인으로는 '고환율 및 환율 변동성 확대'(26.2%)가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고, 트럼프發 통상 불확실성(19.2%), 글로벌 경기둔화(16.8%),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성(14.5%) 등이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

2026년 경제활성화 및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분야로는 ▲관세 등 통상대응 강화(22.9%) ▲국내 투자 촉진 정책(20.6%) ▲환율 안정화 정책(20.6%) ▲위기산업 지원 정책(13.6%) ▲소비 활성화 정책(15.4%) ▲위기산업 지원정책(13.6%) ▲AI·첨단산업 육성지원책(4.7%)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0.9%)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 <붙임> 『2026년 1/4분기 안산지역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보고서』 1부. 끝.